

등가들을 이용한 함축성의 영화번역 전략: 『친절한 금자씨』를 중심으로

이 다 현
(백석대)

1. 서론

영상번역은 대화언어의 번역 문제뿐 아니라 영상이 표현하는 언어 외적인 요소들도 번역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원천영상언어의 생산자가 의도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번역하여 전달하기 위해서는 원천영상언어(SSL: source screen language)의 언어기호(LS: language signification)와 함축적 메시지의 영상기호(SS: screen signification)를 동시에 번역하여야 한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한 영상번역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 체계적인 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영상번역의 특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영상번역 등가들(effective film translations by the matrix of equivalence)’을 설정한다. 이 틀을 이용해 영상번역에서의 방법개선을 도모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상번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설정된 ‘영상번역 등가들’에 의해 영어자막으로 전환된 정서경, 박찬욱 극본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시나리오(씨네 2006)를 위주로 다른 텍스트의 번역문과의 비교분석과 함께 개선된 실제 예를 제시하기로 한다.

등가의 개념을 수용한 학자들은 등가의 대상을 ‘형식’과 ‘의미’의 이분법적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이분법적 기준이 진부한 개념일 수는 있으나, 영화는 시공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형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이분법이 불가피하다. 영상번역가는 영상번역에 있어 영상이 가지는 제한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간, 공간, 특히 글자 수의 제한 내에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원천영화에 사용된 이원화된 원천영상언어를 목표영상언어로 전환할 때 주로 더빙과 자막을 사용하나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연구범위를 형태적으로 확연한 자막번역에 국한하여 설정한다.

이런 한계는 번역가에게 단순한 언어기호 간의 전환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영상기호의 전환은 새로운 영화를 찍어야 하는 의존성이 발생하나 언어기호에 의한 의미고정으로 부분적 보완 및 생산자의 의도적 전환이 가능하므로, 전체적 재구성은 비효율적이고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또한 영상언어에서 언어기호와 영상기호의 상호 의존도 비율 측정 기준에 있어서는 생산자가 의도한 메시지와 수용자의 인지에 의거하는 수준으로 국한하여 논하기로 한다.

언어기호를 생략, 삭제등의 전략에 의해 축소 번역할 경우, 목표영상텍스트는 영상기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다시 말하면, 목표영상언어(TSL: target screen language)로의 전환에 있어서 영상기호 의존도 확대는 언어기호에 대한 의존성축소로 영상기호 자체에 의존하는 전환으로 상대적인 개념이기도하다. 또 영상기호의 함축성을 다른 언어기호로 보완하여 다의성의 고정으로 등가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영상기호와 언어기호의 이원화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즉 제한성이 많은 영상번역에 있어서, 영상기호의 수용성은 기억에 의한 잔여성이 길어 언어기호의 잉여를 생략·삭제 등의 전략으로, 함축성의 전환을 위한 ‘보완’적 응용이 용이하다. 이 가설들을 토대로 함축적인 영상 텍스트적 상황에 맞는 번역전략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이원화를 통해 접근하여, 사전적 번역보다 화면에 나타나는, 또는 함축된 영상기호에 부합하는 언어기호의 화용론적 맥락에 의한 통합, 결합 번역이 가능해진다.

2. 본론

2.1. 영상기호와 언어기호

영상언어는 먼저 언어기호와 영상기호로 이원화되어 있어 다른 문학의 번역이 가지는 일원화된 언어의 기호성과는 차별화된다. 이 차별화의 가장 큰 특징은 영상언어의 함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관객은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영상언어가 가지는 함축적인 비언어적 요소들을 인지과정에서 활성화하여 수용한다. 따라서 영상번역 역시 영상기호를 감안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영상언어 번역의 이론적, 전략적 틀이 있어야 하는 근거로는 제한된 짧은 시간과 한정된 공간 내에서 생산자가 의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쇄언어와 영상언어는 언어 외적 측면에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종합해볼 때 그 차이점 역시 영상언어가 가지는 함축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함축적 특징을 가진 영상언어를 목표언어(TL: target language)로 번역할 때 언어기호와 영상기호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석에 의한 전환과 보완에 임해야 한다는 점은 영상언어의 텍스트성에서 기인한다.

새거(Sager 293)는 “번역이란 외부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산업 활동으로, 정보 기술의 지원을 받으며, 의사소통 중에서도 번역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개별적인 수요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화한다.”고 역설하여 번역을 “산업 활동”, “정보 기술”, “개별적 수요” 등의 요소들이 가미된 복잡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영상물의 원천텍스트가 목적텍스트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복잡한 과정, 즉 생산자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기술 반영과 관객인 수용자의 개별적 수용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미지나 톤까지 언어기호에 함축하여 번역해야 함에 있어서 파비오(Pavio 60)의 수용성 관련, ‘영상기호가 뇌 속에서 언어기호보다 빠르게 처리된다고’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어기호와 영상기호의 상보적 조화로 이루어진 영상언어의 “언어적 정보와 비언어적 정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결합된 상징적인 체계 속에서 표현되고 처리된다.”고 주장하여, 영상기호의 처리는 어느 정도 독자성, 즉 언어적 구조와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영상기호체계를 가진다고 했다.

본 연구는 그런 영상언어의 체계성을 도식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첫째, 영상언어의 두 개체인 언어기호와 영상기호를 각각 ‘A’와 ‘B’라고 가정한다. 둘째, 이 두 개체 ‘A’와 ‘B’에 관한 언어적 정보와 비언어적 정보는 서로 결합된 상징적인 기호체계 속에서 표현되고 처리되지만 그 수용성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셋째, ‘A’와 ‘B’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두 기호간의 체계적 변별력에 있어서는 독자적이나, 그 작용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적이다. 넷째, 그 수용성은 일률적이지 않고 각 기호성에 의존하는 정보량에 따라 상대적이거나, 엔겔캠프(Engelkamp 280)가 ‘영상 우월 효과(picture superiority-effect)’에 관한 언급에서 “영상은 문자보다 더 잘 기억되고 인식된다.”고 하여 삭제나 생략에 의한 언어기호의 축소에 의한 변환과정이 용이하거나 효율적인 인과관계로 성립하게 한다.

이상의 네 가지 가설을 토대는 수용자의 기억 속에서 영상 정보들이 언어적 기호화와 함께 분포되고, 많은 언어적인 정보들 역시 영상적 기호와 조화를 이루어 수용자의 기억 속에서 일종의 통합적 처리과정에 의한 인과관계로 존재한다. 좀 더 덧붙여 말하자면, 영상기호의 단면이나 개개의 영상기호 구성 요소는 언어기호의 결합성에 의해 확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한 여인이 오솔길을 걷는 영상에 ‘자갈길은 산책의 즐거움을 준다’ 라고 쓰게 되면 영상은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길 위에는 자갈만이 부각된다. 여기에 ‘북부의 맑은 하늘’ 혹은 ‘나무는 풍경을 살아 있게 한다’와 같은 기표는 기의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다. 영상지각에 대한 이러한 언어의 영향은 언어기호에 의해 그 의미가 고정되는 영상기호 번역의 신중성을 재검토를 요구하므로 체계구축을 통한 등가적 방안을 시도한다.

2.2. 함축성에 의한 영상번역의 등가방안

소쉬르에 의하면 기호(symbol)는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는데 그 하나는 ‘기표(signifier)’로 시각적 혹은 청각적 표현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기의(signified)’로 ‘기표’를 통하여 전달되는 의미를 가리킨다고 했다(Saussure 1974). 영화 역시 언어기호와 영상기호의 ‘기표’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기의’가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기호로 이루어진 텍스트와 또 동영상 텍스트는 형식상 입체감의 관점에서 그 차이가 크게 드러난다. 영상언어의 ‘기의’는 언어기호

만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영상기호의 보조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면적인 구조와는 달리 입체적인 구조의 영상텍스트에 대한 번역은 그 형식적, 내용적 다의성이라는 ‘기의’를 항상 함축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영상기호에 대한 번역은 ‘schema(스키마: 선형적 도식)’라는 어떤 연상에 의한 입체감과 그 결합으로 보완된 일종의 시각적 표기, 즉 시니피앙(signifiant, 이지연 2006: 34)을 사용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입체적 구조의 분석과 전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등가적 틀을 위해 명시한다.

‘원천영상텍스트(SST: source screen text)’와 ‘목표영상텍스트(TST: target screen text)’간의 변별력을 위해 편의상, ‘SST’의 언어기호를 ‘A’로, 영상기호를 ‘B’라고 명시하고, 전환된 ‘TST’의 언어기호를 ‘A’로, 영상기호를 ‘B’라고 각각 명시한다. ‘ \Leftrightarrow ’는 의미적, 즉 전환방법에 따른 각 기표의 역동성에 따른 기의의 ‘등치’ 관계를 나타내며 ‘ \Rightarrow ’는 ‘등가전환’임을 명시한다. 여기서 ‘ α ’는 ‘언어기호적 요소’로서 명시되며 ‘ β ’는 ‘영상기호적 요소’로서 명시되어 각각 그 기의에 의한 그 기호성을 표시한다.

영상기호의 기표 ‘B’의 전환은 번역가의 영역 밖의 일임을 전제로 한다. 언어기호의 기표로 명시한 ‘A’에서 연상되는 함의적 기의와 언어기호에서 상징된 함의의 기의, 즉 기표가 주는 메시지 등의 총체를 ‘ α ’로 명시하여 언어기호 축소 전환은 ‘A- α ’로, 언어기호 확대전환은 ‘A+ α ’로 표기한다. 다만 영상기호에서 연상되는 함의적 기의와 영상기호에서 상징된 함의의 기의, 즉 기표가 주는 메시지 등의 총체를 ‘ β ’로 표기하여 언어기호 확대 보완에 따른 공식 ‘A+ β ’, 영상기호의 기의에 따른 언어기호 축소로써 그 보완의 공식으로 ‘B- β ’가 성립된다.

앞서 언급한 일부 제한적 요소를 가지고 자막의 언어기호뿐만 아니라 영상기호도 함께 번역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영상번역은 함축적 기의의 전환이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따라서 영상번역에서 언어기호 전환의 효율성을 위한 번역학적 체계를 구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영상언어의 함축성이 상징하는 바를 비언어적인 측면에서는 기호학적 인지관점과 언어학적 측면에서는 화용론적 결합가설로 번역가로 하여금 영상기호의 수정은 불가하지만, 수정 가능한 언어기호를 통한 영상기호의 다의성을 고정시키는 보완과 영상기호의 연상을 통한 언어기호의 정확한 전환으로 조합을 모색한다. 이는 영상언어의 함

축성을 통해 그 효율적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되어 영상번역의 함축성에 따른 '등가전환 공식'은 양 텍스트가 등가에 근접할 수 있는 체계적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SST'의 함축성에 의한 등가성 기본공식(이다현 2007 : 35-45)

공식 1: $SST(A \Leftrightarrow B) \Rightarrow TST(A' \Leftrightarrow B')$ 에서 'A \Leftrightarrow B'는 A(언어기호)와 B(영상기호)의 의미적 크기 면에서 ' \Leftrightarrow '인 '등치'가 된다. 또 ' \Rightarrow '는 '등가전환'의 표시관계로서 각각 그 기본 개요로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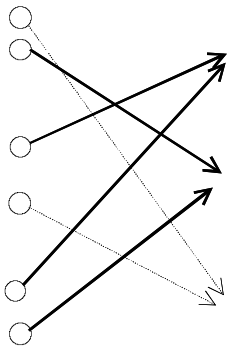
공식 2: $SST(A < B) \Rightarrow TST(A' -\alpha < B' +\beta)$ 에서 'A- α (α : 언어기호성)'는 표현방법에 있어서 두 기호의 상대적 비율상 SST의 언어기호에서 언어기호 축소를 나타내며 그에 비례하여 'B+ β (β : 영상 기호성)'는 '영상 기호 확대'를 나타내며 영상기호의 의존율이 높다.

공식 3: $SST(A > B) \Rightarrow TST(A' +\alpha > B' -\beta)$ 에서 'A+ α '는 표현방법에 있어서 두 기호의 상대적 비율상, '언어기호 확대'에 따른 'B- β '는 '영상 기호 축소'로 상대적으로 언어기호의 의존율이 높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위의 '기본공식'은 SST를 충실하게 TST로 전환하는 등가전환의 기본 개요가 된다. 그러나 반복하지만 함축성의 특성과 그 밖의 제한성으로 인해 영상언어 텍스트에서 추구하는 등가성은 목표언어텍스트에서도 함축성의 전달이 필수적이며 효율적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위의 방법에 의한 전환은 각각 아래의 논의와 같은 전·변환을 허용하여 아래의 <표 1>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표 1> 영상언어의 함축성에 의한 '전환' 공식의 모형도

SST1 ($A \Leftrightarrow B$)	\Rightarrow	· ① TST1 ($A' \Leftrightarrow B'$)
SST2 ($A-\alpha < B+\beta$)	\Rightarrow	② TST2 ($A' -\alpha < B' +\beta$)
SST3 ($A+\alpha > B-\beta$)	\Rightarrow	③ TST3 ($A' +\alpha > B' -\beta$)



SST: A(언어기호)와 B(영상기호), TST: A'(언어기호)와 B'(영상기호), '⇔'는 의미적 '등치'관계, '⇒'는 '등가전환', α(언어기호성), β(영상기호성), '→'는 '적절한 전환', '↗'는 '부적절한 전환'으로서 명시(이다현 35-45)

함축성에 의한 영상번역의 효율적인 등가적 전환에 있어서 SST1(A ⇔ B) ⇒ TST1(A' ⇔ B')로 설정된 '공식 1'은 원천텍스트에서 영상언어의 기호성, 즉 언어기호와 영상기호가 각각 다음 'SST1(A ⇔ B)' 같이 등치에 근접할 때, 설정된 기본 개요인 우변의 '영상번역방법 ①'의 'TST1.(A' ⇔ B')'로 양립균등 의존 외에도 위의 '표 1'의 우변의 '공식 ①, ③'으로의 전환공식처럼 영상기호나 언어기호의 가감에 의한 영상언어전환의 적절성을 모색할 수 있으나, 우변 '공식 ③'으로의 전환방법은 언어기호의 첨가적 현상에 따른 '기의'의 잉여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제한이 많은 영상번역에서는 권장할 방식이 아니다.

'공식 2'는 'SST2(A-α < B+β) ⇒ TST2(A' -α < B' +β)'에서 'A-α'는 영상언어 표현방법에 있어서 '언어기호 축소'에 따른, 'B+β'인 '영상기호 확대'의 표현에 의한 두 기호의 비율상, 상대적으로 영상기호의 의존율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번역의 방법에서는 생략과 삭제 등의 함축적 전환이 모색된다. 등가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 '공식 2-①'인 'SST2.(A-α < B+β) ⇒ TST1.(A' ⇔ B')'로 전·변환도 가능하며 이런 의존적인 영상 목적언어는 보편적인 기준에 의한 생산자의 양립 균등한 표현방법이 되므로 수용자 입장에서도 무리가 없이 인지가 가능하여 등가 근접에 큰 어려움은 없고 영상번역을 위한 지향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언어기호 축소와 영상기호 확대에 따른 목표언어 수용자의 부족한 이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언어기호의 의존율을 높이는 위의 방법과 같이 '공식 ③ TST3(A' +α > B' -β)'도 경우의 수로 설정된다.

물론 영상번역에서 시·공을 비롯한 각종 제약을 항상 염두에 둔다는 전체 하에서 실행에 옮겨야 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함축성 때문에 텍스트 흐름을 방해하고 비경제적인 다소 지루한 작품으로 전락할 현상도 예상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경우의 수로서 제시는 하지만, 역시 언어기호의 첨가에 의한 잉여성을 잉태할 소지가 빈번하므로 지양해야 하며 가능하면 함축성에 의한 표현을

활성화하는 나머지 두 방법을 권장한다.

‘공식 3’ $SST3(A+a > B-\beta) \Rightarrow TST3(A'+a > B'-\beta)$ 에서 ‘A+a’는 원천 언어(SL: source language) 표현방법에 있어서 두 기호의 비율상, ‘언어기호 확대’에 따른 ‘B-β’는 상대적 ‘영상기호 축소’로 언어기호의 의존율이 높다. 따라서 ‘공식 3-①’인 양립균등 의존방법 외, ‘공식 3-②’로 ‘ $TST2(A'-a < B'+\beta)$ ’는 표현방법에 있어서 두 기호의 의존비율상, 원천언어로 이루어진 ‘ $SST3(A+a > B-\beta)$ ’는 ‘언어기호 확대’에서 언어기호성을 축소하는 ‘A-a’의 전환방법이 되고 상대적으로 원천텍스트의 ‘B-β’인 ‘영상기호 의존 축소’에 비해 상대적인 ‘B+β’로 영상기호의 의존율을 높이는 ‘α’인 언어기호성과 ‘β’인 영상기호성의 의존도가 각각 상호 이동하는 전환방법으로, ‘공식3-②’의 ‘ $SST3(A+a > B-\beta) \Rightarrow TST2. (A'-a < B'+\beta)$ ’가 된다.

이상의 방법설정으로 영상번역에서 함축성의 전환에 따른 등가성에 도달하는 가설을 공식화하여 그 틀을 설정하여 논의하고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그러한 설정에 따른 실제적 적용방법, 즉 전략에 의한 입증에 필요하다. 그러나 영상기호의 특성상, 다의성을 내포하므로 생산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의미의 고정을 항상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영상기호의 다의성을 고정하는 전략을 위해서 연상에 의한 함축성을 인지하는 과정과, 이어서 언어기호의 화용론적 맥락에 의한 보완의 결합을 한정된 지면상의 연유로 우선 영상번역의 그 특수성을 감안한 ‘공식 1’에 준하는 최적의 예에 국한하여 논의한다.

2.3. 함축성에 의한 영화번역 전략 I

영상 대화에서는 어순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순을 바꿔 상황을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황선길 33). 바뀐 어순의 대화를 번역할 때 함축성에 의한 영화번역 전략 ‘공식 1’에 따른 우선 ‘유표성(marked)의 전략’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주가 되는 단어를 강조하려는 것인데 번역자는 당연히 강조된 단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Halliday 2441).

단 번역을 통한 전환 이후에 반드시 영상기호와 대사인 언어기호의, 즉 영상언어의 심층결속성 또는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관객의 입장에서 적절성을 가지는지를 확인 및 재검토해야 할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런 차원에서도 번

역가는 텍스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주제 선정의 결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한 단락 속에 있는 문장의 주제가 어떤 의미론적 영역을 언급하고 있다면 그 의미론적 영역이 그 단락을 전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일반적인 의미론적 요소에서도 한 단락속의 문장 내에서 그 주제를 떠올릴 수 없다면 전개시켜나갈 어떤 간단한 방법들도 전혀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영상번역에 있어서 대사의 구조에 의한 유표적 전환은 함축성에 의한 언어 기호의 결합과정에 있어서 번역가의 의미선택의 폭과 그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준다. 이때 주제로서 언어기호는 선택되는 것인데 그 요소는 주어, 술어, 목적어, 보어, 부가어로서, 주제 선정은 화자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함의를 강조하여 제시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의미(meaning), 선택(choice), 유표성(markedness)의 개념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언어기호적 요소가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황선길(ibid. 29: 49)이 말하는 ‘영상의 대사는 어순을 바꿔 극적이고 강조하는 대사를 많이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언급과 일맥상통한다. 영화에서 대사는 어순이 바뀌는 경우가 많음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번역학에서 강조되는 유표적 주제(theme)의 기능과 연관된다. 유표적 주제의 기능은 첫째, 한 문장의 화제나 출발점으로서 특수한 요소를 내세우는 것이다. 둘째, 문제시되는 요소를 중요하게 부각시키거나 강조해준다.

따라서 자막이나 더빙의 영상번역에서 제한된 어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주제화(thematization) 전략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영상번역은 자막번역, 더빙번역, 보이스오버(voice-over) 등의 방법으로 번역되는데, 특히, 더빙번역에서는 ‘역양’을 통하여 알려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본다. 역양은 대사뿐만이 아니라 언어의 다의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효율적이다. ‘강제’도 역시 구두상으로는 정보의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지만 단순한 언어기호적 전환에서는 불가능하다.

언어기호로 이루어진 자막번역은 작품 캐릭터의 대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목적언어로 전환하여 자막처리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순에 의한 강조의 방법으로 주제화의 전략은 비 언어기호에 의한 제한을 염두에 둔 영상번역 전략에 효율적이다. 특히 영상번역은 대화로 이루어진 텍스트가 대부분이므로 그 효율성을 위해 베이커(Baker 1992: 140)가 주장하는 원천 또는 목적텍스트에서

주어진 구조의 유표성 인식과 더불어 번역가는 각 언어에 유용한 주제화 장치를 이용하여 공식적 전환에 의한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상번역의 효율적인 함축성의 전략차원에 입각하여 주제구조에 관한 논의에 적합한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SST의 함축적 대사로 “너나 잘 하세요!”에를 비롯하여 ‘공식 1’의 전환 방법에서 주제구조에 관한 전략을 통하여 분석을 더 해보기로 한다.

“너나 잘 하세요!”가 함축된 목적언어기호에 있어서는 중개자로서 번역가가 제2 생산자로서 ‘금자 : Why don't you go screw yourself?’란 텍스트를 낳았다. 그러나 끝 장면(ending scene)에서 언어기호의 함축성을 통해 ‘보완’된 “하얏게”는 악을 은폐하고 선을 가장함으로써 악의 상징이 되는 전도사가 내민 ‘두부’는 금자가 내민 ‘케이크’와 함께 ‘자기구원’을 암시하는 함축된 이미지로 비슷한 현대인인 관객과 괴변의 세상에 대한 생산자이자 화자인 감독의 현사를 상징한다고 자체 평론에서 언급한다.

또 생산자는 쇼크와 충격의 함축적 이미지를 띤 영상기호를 통하여 이원화한 “선 + 악의 구조”로 “도덕과 음란”의 상징인 전도사를 영화 『친절한 금자씨』가 우리 시대의 불우한 상황을 상징하는 함축성의 언어로 불우하게 만든 사항을 단죄가 아닌 영혼에 대한 정화의 차원에서 흰색의 대비를 설정했다고 분석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한 결과, 본 연구는 “You take care of yourself!”로 일반적인 “take care of you!”와 달리 어두에 배치된 원천언어기호 “너나 잘 하세요!”에서 “너”에 대한 목표언어기호 ‘You’의 첨가로 주제구조의 강조에 의한 함축성의 영상언어로서 ‘공식 1’에 준하는 등가를 구현하는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 결과, 유표적 의미의 구조에서 주제어의 위치는 문장차원에서 국부적으로 부각된 것이다. 즉, 평언(theme)의 위치에서 전체 내용을 부각시킨 차원과는 달리 한 단어를 주제어의 위치에 놓는 것은 문장 내에서 부분적이며, 임시적으로 부각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안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관련된 자료의 재인지과정을 위한 『친절한 금자씨』 미디어 등의 공간 활용방법으로 재소통적 행동을 권장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적용에 임하여 “너나 잘 하세요!”를 영어자막으로 “Why don't you screw yourself?”의 또 어떤 적절한 대안을 묻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금자 : Why don't you go screw yourself?’란 번역가의 목적언

어전환 텍스트를 ‘You, take care of yourself!’로 변환한 후, 좀 더 정확성을 기하고자 미디어 등의 재소통을 시도한 결과 “Mind your own business(scine21 2006)”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번역 결과후의 소통적 행위는 영화가 예술행위의 문화상품으로서 번역가의 책임감 있는 중개를 통해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도 새로운 수용자들과 미적 인지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급된 관련 자료의 적절성을 비교분석하고자 사전적 분석과 성분분석에 의한 검증을 다음과 같이 시도한다. 위의 예문 “Mind your own business.”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일에 상관 않다.”와 대응된다. 또 “Why don't you screw yourself?”에서 ‘screw’는 ‘(비어) 속이다’와 ‘성교하다’로 이미 본 연구의 대안인 ‘You, take care of yourself!’와 더불어 논의된 바 있어 ‘~을 돌보다’, ‘~을 보살피다’, ‘(구어)~을 처리[해결]하다’, ‘(속어)~을 제거하다’, ‘죽이다’로 SL인 “너나 잘 하세요!”는 영상기호가 주는 연상과 또 보완의 상호작용으로 미루어 냉소적이고 비꼬는 말투로 너 자신이나 잘 돌보고 잘하라는 한국식 표현이 된다. “남의 일에 상관 않다.” 혹은 “상관 마!”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에 추가하여 예상되는 각각의 목적언어 중 그 핵심어가 되는 ‘go screw’와 ‘take care’, ‘own business’에 대한 성분분석을 하였다.

성분분석이란 의미론적 자질 세트를 통하여 전체어휘군 목록(lexicon)에서 보편적이고 확실한 자질을 분석하여 제한적인 내부구조와 어휘소들(lexemes)의 목록으로 만듦으로써 그러한 어휘목록의 의미를 기술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bachelor’는 [+human, -female, +adult, -married] 등과 같이 그 의미의 자질을 다양하고 상세하게 분석하여 한눈에 볼 수 있음이 큰 장점이 된다. 원천영상기호에 대응하는 목적영상기호의 유사어가 많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함축적 번역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검증하고자 할 때, 성분분석은 SSL과 TSL의 의미론적 자질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된다. 나이다도 성서를 번역할 때 SL에 나타난 단어의 지시적 의미(referential meaning)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성분분석을 사용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o screw’와 ‘take care’, ‘own business’에 각각 그 함축적 뉘앙스가 주는 수용성이 변별적인 이디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SSL의

함축적 의미에 부합되는 SSL을 선별하고자 한다. 이때 이러한 분석을 적용하는 이유는 영상번역에 있어서 함축적 가치가 투영된 언어기호를 번역할 때, 단순히 문자 그대로 전환하지 않고 ST에서 생산자가 지향하는 특별한 즉 핵의 의미 구조를 영상기호의 의미적 가치와 비교분석한 후 번역하는 것이 TT에서 심층적 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SSL의 함축적인 가치개념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나이다(Nida 484)가 언급한 번역모델의 첫 번째 단계인 ‘분석’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논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문법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전혀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원천언어와 수신자연어의 경우, 번역과정을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능력 있는 번역가는 하나의 표층구조에서 다른 표층구조로 직접 가지 않고 분석, 전이, 재구성이라는 과정들을 거쳐서 간다고 했다. 원래 나이다의 이 모델은 구문론적인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었으나 나이다와 테버(Nida & Taber 34)도 성분분석을 이용한 어휘의 의미론적인 측면도 연구된 바 있으므로 그의 이론적 실행에 적용한다.

영상번역에서 번역가는 제일 먼저 SS의 메시지를 ‘연상’ 등의 인지과정과 언어기호의 함축성은 ‘대화함축 원리’ 의해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메시지를 ‘결합에 의해 전환’시킴으로써 번역가가 목표로 하는 수신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신자 언어의 차원으로 그 메시지를 ‘재구성’하는 것이 된다. 성분분석은 위의 번역의 세 단계 중 ‘분석’ 단계에서 분석해야 할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아야 함당하므로 나이다와 테버의 ‘분석’의 세 가지 단계를 먼저 적용한다.

즉, 첫째, 전환의 대상이 되는 언어기호는 영상기호의 결합 간에 의미 있는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영상기호의 함축적 의미(referential meaning)와 언어기호들(관용어구)의 특수한 결합을 결정하는 것이다. 셋째, 함축적 의미(connotative meaning)로서, 언어사용자가 언어기호간 결합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긍정적 혹은 부정적)을 취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본 연구는 특히 함축적 의미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성분 분석을 적용하였는데 그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단계에서 함축적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함축적 언어기호가 지니는 가치에 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긍정적(G: good), 중립적(N: neutral), 부정

적(B: bad)으로 나누어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단어들이 함축하고 있는 함축적 가치에 대한 분석방법의 예가 된다(ibid. 96). 물론 이와 같은 성분분석에 의해 그 함축적 가치를 비교하는 근거로는 충분함을 제시할 수 없고 번역결과와 비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한 언어기호에 대하여 연상되는 단어들을 단어사용자로 하여금 한 어휘에 대하여 연상되는 단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번역결과를 위한 비교가 가능하다(윤희주 165). 따라서 ‘go screw’와 ‘take care’, ‘own business’라는 단어에 대하여 SSL(한국어)과 TSL(영어)에 상응하는 단어를 의미론적 자질 세트를 통하여 전체어휘군 목록에서 보편적이고 확실한 자질들로 어휘소들(lexemes)의 목록으로 만듦으로서 그러한 어휘목록의 의미 기술이 가능하다(Bussmann & Kazzazi 88-99, 윤희주 재인용)는 논거에 의해 다음 어휘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악의 상징이 되는 전도사가 내민 ‘두부’는 ‘케이크’와 함께 ‘자기구원’을 암시하는 긍정을 상징한 함축된 이미지가 된다. 이때 생산자는 쇼크와 충격의 함축적 이미지 수법으로 함축된 영상기호를 통하여 이원화한 “선 + 악의 구조”로 “도덕과 음란”의 상징인 전도사를 단죄가 아닌 영혼에 대한 정화의 차원에서 ‘두부’라는 흰색의 대비를 설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는 자신의 악의 영혼은 은폐한 채 남의 영혼에 대한 정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대상 역할자인 금자는 너의 영혼이나 잘 돌보라는 생산자인 화자가 청자인 관객과 세상을 향한 함축적 메시지를 매개자 역할이 되어 남긴다. 따라서 이때 냉소적인 영상기호와는 달리 “너나 잘 하세요!”란 긍정적 의미로 결합된 언어기호에 함축된 메시지는 상반됨을 보여주므로 비꼬는 예가 되어 더 큰 메시지의 효과, 즉 유포적이 된다. 따라서 그러한 상충된 효과적 취지에 입각하여 영상기호와는 무관하게 언어기호는 긍정적인 함의의 어휘를 선택함이 마땅하다.

분석의 결과에 추가하여 예상되는 각각의 목적언어 중 그 핵심어가 되는 ‘go screw’와 ‘take care’, ‘own business’ 등이 지니는 가치에 대하여 Nida와 Taber(96)의 긍정적(G: good), 부정적(B: bad)으로 나누어 표기하도록 한 방법의 지침에 따라 각 단어들이 함축하고 있는 함축적 가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가 보완으로 제시한 ‘take care of’는 돌보다는 의미로[+good, +positive]의 긍정적 의미자질로 볼 수 있다. 또 ‘own business’는 남의 일에 상

관 않다.’ 혹은 ‘상관 마!’에서 핵심어가 되는 ‘business’는 일과 관련해, 즉 [+neutral, -positive]의 직접적인 표현이 된다. 목적영상텍스트에서 보완된 ‘go screw’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하면 ‘(비어) 속이다’, ‘~와 성교하다’, ‘엇 먹어라’ 정도의 함의로 [+bad, +negative]가 된다.

결론적으로 영상기호는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지만 ‘너나 잘 하세요.’란 긍정적 의미로 보완된 언어기호의 함축된 메시지는 상반된 긍정의 의미를 보여주므로 상충된 예가 되어 더 큰 메시지 효과, 즉 유표적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안인 ‘You take care of yourself!’로 논의된 바 있어 ‘~을 돌보다’, ‘~을 보살피다’, ‘~에 조심하다’, ‘(구어)~을 처리[해결]하다’, ‘(속어)~을 제거하다’, ‘죽이다’로 SSL인 ‘너나 잘 하세요.’의 영상기호가 주는 연상과 또 보완의 상호작용으로 미루어 냉소적이고 비꼬는 말투로 너 자신이나 잘 돌보고 잘하라는 한국식 표현으로 그러한 상충된 효과적 취지에 입각하여 영상기호와는 상반되나 언어기호는 긍정적인 뜻을 함의한 어휘를 선택하여 상호 결합시킨 목표영상언어가 원천텍스트와의 등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표적 주제구조, 즉 강조의 메시지로 전환하기 위해 주로 고(高)음조로 표현되는 ‘Take care of you!’에서 ‘you’를 문두에 배치하여 ‘You, take care of yourself!’의 유표적 주제구조화로 이루어진 문장은 ‘주제 + 정보’로 구성된다. ‘주제어’는 문맥 혹은 언어 환경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사실을 말하며 기능면에서 보면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앞뒤의 내용을 연결시킴으로써 방향을 설정하여 문두에 위치하여 내용의 전개를 효율적으로 강한 메시지로 함축하여 전환하는 전략이 된다.

이는 공식 1, $SST(A \Leftrightarrow B) \Rightarrow TST(A' \Leftrightarrow B')$ 에 의한 언어기호의 등가에 준하는 전환에, 영상기호에서 주는 냉기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원천텍스트적 상황에 따라 목적어 수용자의 동등한 수용적 결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함축성에 의한 등가’에서 방법적 지침을 삼고자 논의한 부분 중 두 기호의 비율 상, ‘언어기호 확대 지양’에 따른 상대적 ‘영상기호 확대’로 영상기호의 의존율도 적절하게 결합되어 전환될 수 있다.

이때, 본 연구에서 논의된 영상번역의 이론적 체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를 규합하기 위해 번역을 하나의 기호현상으로 인식한 야콥슨(Jakobson)의 주장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번역을 단지 ‘언어기호를 어떤 다른 기호로 해석’

하는, 즉 영상기호로도 가능함을 전제하는 ‘언어 간 번역’ 이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용자적 관점에서, 다양한 시청자들을 위해 전문 기술적 내용들을 쉽고 간단하게 각색하기도 하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고전을 각색하는 등, 언어기호를 동일한 언어의 다른 기호로 해석하는 ‘언어 내 번역’과 하나의 기호를 어떤 그 이상의 대안이 될 만한 기호로 전환 및 언어기호를 음악이나 그림, 영화, 춤 등의 비언어기호체계로 해석하는 ‘기호 간 번역’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상언어는 함축성의 언어’라는 전제로 그 영상언어의 전환이 많은 기호학적 관점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영상기호·언어 기호의 결합가설(coupling hypothesis)’ 차원에서 다각적인 영화번역 전략들이 수립됨을 전제하지만 우선은 공식화된 함축성의 등가들 중에서 ‘공식 1’에 의한 실제적 예 ‘<표 2> 영상언어의 함축성 전환공식 1에 의한 대칭적인 번역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2> 영상언어의 함축성 전환공식 1에 의한 대칭적인 번역모델

순서	제목	SSL	TSL	진단
1	『The Truman Show』	if he was absolutely determined to discover the truth.	정말 진리를 발견할 결심이 있다면.	대칭적임
2	『Jurassic Park』	if the Pirates of the Caribbean breaks down,	∅.	문화적 LS.
3	『친절한 금자씨』	나...사람하나 더 죽일라구 그런다.	I'm planning to kill another person.	회용론적 전제에 의함
4	『친절한 금자씨』	뭐든지 예쁜 게 좋아	Every thing should be pretty.	장식에 관한 영상기호 인지
5	『친절한 금자씨』	여보요, 우리 금자 너무나 무 위대한 작전을 준비중 이거덜? 도와줄수 있짚?	Honey, Guem-Ja is readying a magnificent plan. You can help her, <u>right</u> ?	언어기호와 영상기호 미적지각

위 <표 2>의 『The Truman Show』 SSL에 대한 TSL은 단순한 대칭적 전환이 되어 이는 공식 1, $SST(A \Leftrightarrow B) \Rightarrow TST(A' \Leftrightarrow B')$ 에 의한 언어기호의 등가에 준하는 전환이 된다. 그러나 『Jurassic Park』에서 SSL은 그 의미전달 차원에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므로 삭제 전환되었다. 페르미어

(Vermeer 1982: 97)가 말한 ‘번역이란 다른 언어로 나타내는 원천텍스트에 관한 정보’이며, 영상번역 역시 원천영상언어 텍스트의 정보를 목표언어로 전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영상번역에 있어서 전환의 고려대상이 단순 의미나 메시지의 전달 차원에서 발전하여 텍스트에 함축되어 있는 상징성이 와해되지 않는 범위나, 텍스트의 전체적 미학적인 차원에서 저해되지 않는다면 시·공적 제한을 감안하여 신중한 전환이 요구된다. 영화는 언어기호와 영상기호의 표현행가 합해서 영상언어가 된다. 그 영상언어에서 언어기호를 제외한 음악이나 그림, 영화, 춤 등을 비언어기호체계로 해석하는 ‘기호 간 번역’을 통해 영상기호는 비언어기호체계로 따로 분류되었으므로 특별히 언어기호체계로 다의성의 고정처리를 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나 생략에 의한 전환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위의 ‘『친절한 금자씨』3, 4’는 각각 적어도 한사람 이상을 죽인 전제가 있음이 인지되어 ‘사람을 죽였다는’ 보완적 전제가 필요없는 ‘화용론적 전제’와, ‘장식’에 관한 영상기호의 상호 인지과정을 통해 언어기호에 의한 의미 고정적 재보완이 불필요하고 경제적이므로 생략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의 많은 영상언어의 번역은 주 연구텍스트에서의 실험적일 정도로 다양하고 새로운 기법을 통하여 고도의 함축적인 메시지로 인간성에 대한 호소력을 던져준 생산자이자 화자의 의도와는 달리 그 함축적인 상징성을 효율적인 등가로서의 근접에 다소 비대칭적이란 점이다. 다음 <표 3> 영상언어의 함축성 전환공식 1에 의한 비대칭적인 번역모델’에서의 한 예로 『친절한 금자 씨』란 언어기호에 함축된 상징성의 비중은 높다.

<표 3> 영상언어의 함축성 전환공식 1에 의한 비대칭적인 번역모델

순서	제목	SSL.	TSL.	진단 및 대안
1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	Sympathy for Lady Vengeance	언어와 영상기호의 등가성 위배; Ms. Kind Kum-Ja
2	『친절한 금자씨』	동무에겐 원수가 있으니....	... for you have vengeance to take, comrade.	... for your vengeance, comrade.
3	『친절한 금자씨』	이런 건 뭐 하러?	What's the use of all this fanciness?	What's the use of all this ∅?
4	『친절한 금자씨』	저, 개종했어요.	I've converted to buddhism!	종교의 질을 논하는 차원의 함축이 아닌 단절을 함축; I converted ∅!
5	『The Truman Show』	∅.	우리가 그를 막을 수는 없어...	잉여적임; ∅.

첫 번째, 텍스트 내에서도 그녀를 알게 되는 배역들은 모두가 그냥 ‘금자씨’가 아닌 ‘친절한 금자 씨’로 칭하는데도 불구하고, TSL에서는 ‘Sympathy for Lady Vengeance’로 대응 번역되었다. 대응된 TSL 중 ‘Sympathy’는 ‘동감, 동정, 호감’ 등으로, ‘Vengeance’는 ‘복수, 원수 갚기, 앙갚음’ 등으로 각각 그 의미를 구성한다. 그에 따른 결합은 ‘숙녀의 복수에 대한 동정심’이 되고, ‘역번역(back-translation)’을 하여도 ‘친절한 금자 씨’와는 많은 비대칭성을 보인다.

하물며 ‘순서2’의 대안이 되는 ‘TSL. ... for your vengeance, comrade.’에서의 언어기호 축소전환과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체험한 관객도 이 제목에 대한 상징성을 역동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Sympathy for Lady Vengeance’라는 전환은 그 수용성에 있어서 생산자의 의도와 많은 차이를 가지거나 그런 판단은 단지 추론에만 불과하여 혼란만 가중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장면의 영상에 제한되어 있는 글자 수까지 등가를 고려해야 하는 텍스트 특성상, 영상번역은 수용자 관점에서의 역동적 등가도 중요하지만 항상 형식적 제한을 감안하여 언어와 비언어적인 영상기호의 등가성을 고려하는 형식적 등가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서 본 연구는 주 연구 텍스트의 제목이 되는 SSL의 ‘친절한 금자씨’를 위에 언급한 논거에 의해 TSL의 ‘Ms. Kind Kum-Ja’로 본 연구의 변환(shift)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TSL이 한국어일 때와는 달리,

SSL이 한국어일 때는 목표문화권 수용을 고려해 외국어 이름을 제목으로 선호하지 않는 현 영상번역의 지양되어야 할 실태를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변환 전의 ‘Sympathy for Lady Vengeance’를 부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대안으로 제시한 ‘Ms. Kind Kum-Ja’의 ‘정보’에는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비언어적 모든 기호의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영상번역의 특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영상번역 등가들’의 설정하였다. 이 틀을 이용해 영상번역 방법개선을 도모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상번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고 ‘영상번역 등가들’을 만들어 기존의 번역문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된 실제 예를 제시하였다. 영상텍스트 조직을 부여하는 것은 표층결속적 기표가 심상에서의 인지적 결속능력, 즉 함축된 의미의 연속체를 형성하는 함의적 관계가 기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층결속적 기표는 기의가 함의하는, 즉 기의에 대한 해석을 촉진하고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는 면이 중요하다.

영상텍스트의 심층결속성은 그 텍스트가 제시한 지식이 관객의 지식 및 경험에 의한 상호작용의 결과에 비례된다. 공지시(co-reference)의 간단한 표층결속적 관계조차도 수용자인 번역가와 관객의 일반적 지식과 일치하지 않으면 원천텍스트에서 의도된 인식이 여의치 않게 된다. 물론 텍스트성에 따른 미적수용의 변별성은 인정된다. 그래서 논의된 ‘주제강조’ 구문처럼 기존의 지식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에 의해서 약간 벗어날 때, 메시지의 강한 효과가 크게 작용하며 실제적으로 영상텍스트의 함축성에 의한 표현적 특성이 된다.

이때 1차 수용자 번역가의 정확한 메시지 전달은 2차 수용자 관객도 보완된 언어기호에 의한 고정된 기의에서 함축되는 ‘연상’에 의해 영상기호의 대칭적 인지와 상호 결합된 상황적 맥락에 의해서 전제된 언어기호 역시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산자가 의도하는 메시지의 수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연상’의 인지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인지된 영상기호는 파비오(1971)가 말한 각 수용

자의 심상과 지식에서 기억과 추론에 의해 언어기호와 상호 결합된다고 한 이론과 연결된다.

논의된 목표영상언어에서 ‘Why don't you screw yourself?’에 의해 생산자의 의도부분과 비대칭적으로 고정된 연상을, 영상기호의 가시적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고 비가시적인 원천텍스트의 등가적 함축성의 해독을 위해 영상기호 관점에서는 동일한 텍스트를 수용하는 번역가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중재는 수용자가 목적언어로의 전환 시 텍스트 상호간의 등가적 수용성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결국 이 가설은 수용자의 영상 매개체로 함축되어 있는 기호학적 영역과 언어에 대한 텍스트 상호간(intertextual space)에서 이루어지는 이해의 정도에 따라 목표언어의 수용성도 차별화된다. 따라서 영화 『친절한 금자 씨』의 예를 들어 가정한다면, 이 영화가 영상기호에 의한 미적 체험과정을 통하여 이차적 수용자 관객으로 하여금 이해증진의 한 방법으로 기호론적 관점의 접근 분석이 있어야 영상번역이 가지고 있는 상업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인 실용적 기여, 즉 표현적 한계를 고려하여 생산자의 의도개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의 결론이다.

실제 이 영화가 원천언어에서 목적언어로 전환될 때에는 또 다른 수용자가 개입된다. 그가 바로 번역가이며 번역가는 수용자의 용이함과 그 텍스트 수용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번역가가 작가의 단순한 진술과 이미지답습의 오류로, 이를 왜곡하여 수용하면 관객 역시 번역가의 진술에 의해 구성하고 왜곡하여 수용하는 인지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번역가는 우선 분리된 영상기호의 미적 체험과정을 통해 원천작가의 의도를 감안한 언어기호로 보완된 ‘틀’로 최종 단계의 수용자 관객으로 하여금 이해증진을 위한 인지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더한다.

영상기호에 의한 미적 체험과정을 통하여 최종 단계의 수용자 관객으로 하여금 이해증진의 한 방법으로 동일한 영상기호의 수용성에 있어서 번역가는 중재자적 입장으로, 언어기호 입장에서는 생산자적 입장으로 개입하여 영상언어 입장에서는 양 텍스트 개념에 의한 결합을 시도하는 중개자의 입지로 대화의 주 참여자가 되어 관객들의 이해증진 방안에 입각한 수용성을 위해 재소통적 의무와 책임에 의한 권리행이 요구된다. 그에 따른 수용성 증진의 실제적인 방법적 제시로 번역학에 새로운 영역으로의 실천적 방안제시가 될 수 있을 것

이라는 확신과 함께 전략수립의 한 방편으로 제안하며 추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박찬욱. 2005. 『친절한 금자씨』. 서울: CJ 엔터테인먼트.
- 윤희주. 2004. 「영한 번역에서 문화적 어휘에 대한 유표적 번역 연구」. 세종대 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다현. 2007. 「영상번역을 위한 합축성 연구」. 세종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일범. 2003. 『번역의 이론과 실제』. 인문과학연구소 강원대학교 출판부.
- 이지연. 2006. 「T.V, 방송뉴스의 특성과 전략」. 세종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민호. 2004. 「번역과 언어의 경제: 영화번역을 중심으로」,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6권 2호.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학회. 29-37.
- 황선길. 1999. 『문법과외 영상번역』. 서울: 범우사.
- Baker, M. 1992. *In Other Wor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Engelkamp, J. 1991. "Bild und Ton aus der Sicht der kognitiven Psychologie". *Medienpsychologie*, 4. 259-290.
- Gambier, Y. 2000. *Translation in Context : Selected Contributions from the EST Congress*. Granada: John Benjamins Pub.
- Halliday, M.A.K. 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Journal of Linguistics* 3, 2. 199-202.
- Jakobson, R. 1958.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R. Brower(ed.). *On Translation*. Cambridge, Mass.
- Nida, E. A. & Taber C. R. 1982.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J. Brill.
- Nida, E. A. 1962.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 Pavio, A. 1971. *Imagery and Verbal Processes*. New York, Chicago: Holt, Rinehart & Winston.
- Sager, J. C. 1994. *Language Engineering and Translation: Consequences of Automation*.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 Co.
- Vermeer, Hans J. 1982. "Translation als Informationsangebot", *Lebende Sprachen* 27: 3, 97-101.

<사이트>

<http://www.cine21.com/Index/index.html>

http://www.cine21.com/Article/article_view

[Abstract]

**A Study of Effective Film Translations
by the Matrix of Equivalence**

Lee, Da Hyun
(Baik Seo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film translations based on systematic model and strategic approach. As domestic film markets are flooded with imported films in today's globalized world, such an approach maximizes effective screen translation. If screen materials are to be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and put on the screen, the translated works should transmit the intentions of the writers and directors exactly as other literary works do. However, in the screen translation, unlike in other literary works, the translation of image signs as well as the translation of linguistic signs should be included.

Screen translation is the process of transferring and supplementing signs into a target screen sign text. Therefore, picking up the core of the most important context is essential. In this study I defined semiotic cognitive signs of screen expression in non-linguistic and linguistic sign. I also analyzed implication, which is used in transferring the implied language of the source text, in terms of both cognitive aspect and pragmatic combination assumption, reflecting the two aspects, visual sign and language sign, respectively. By 'the matrix of equivalence', the componential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strategies (e.g., exclusion of source-language redundancies and thematization, omission, ellipsis of condensation and implication) used and an equal value translation was produced used.

▶ Key Words: film translations, implication, screen language, screen sign, language sign, matrix of equivalence, thematization, omission, ellipsis,

이다현

백석대학교

transorlee@yahoo.co.kr

관심 분야: 이론에 입각한 영상번역 및 수용성 증진방안

논문투고일: 2007년 4월 19일

심사완료일: 2007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07년 6월 13일